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전도서 1:1-10)

이 시대의 지성인이고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오스 기니스 목사님이 쓰신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감사하고 만족스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인생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고, 두 번째는 사명에 대한 강한 인식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의미에 대한 바른 가치적 인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인생을 열심히 달려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한 정점에 서서 삶의 소유는 훌륭하게 얻어는 냈어도 삶의 버를 의미와 가치 그리고 목적이 결여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공고하게 느끼며 사는 인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복처럼 공고한 그 날이 오기전에(전 12:1) 우리 모두는 이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인생에 대한 성경적 그리고 지혜로운 관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전도서가 우리 모든 누장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인생에 관한 하늘의 지혜를 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믿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는 이 헛됨에 대해 5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브릴에서 5라고 하는 숫자는 ‘강력함’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 만큼 전도자는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를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전체에서 이 단어는 무려 38번씩이나 등장을 합니다. ‘헛되다’라는 허브리어 단어는 ‘헛됨’입니다. 이 ‘헛됨’이란 단어의 뜻은, ‘증가’ 또는 ‘언제’ 그리고 ‘구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와 연결해서 확대 해석을 하면 ‘결제가 없다’ 뜻였다. 그리고 허무하다라고 강조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ESV 성경에서는 ‘vanity(허무하다)’로 해석했고, NIV 성경에서는 ‘meaningless(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나? 하벨 즉, ‘증가와 같다’ 그리고 ‘언제와 같다’ 즉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이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나? 하벨 즉, ‘구름과 같다’ 정척 없이 그리고 끊임 없이 흘러가고 지나가는 인생. 그 누구도 그 시간도 세월도 잡을 수 없이 가며 지쳐 또한 결국 사라지고 마는 구름과도 같다. 그러나 헛되고 헛되지 않는가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인생이 그래서 허무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 그 허무한 만큼 전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 모든 헛되고 헛됨은 ‘해 아래서만의 수고(3월)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처럼 ‘해가 도니 열이나 열터로 가고 해가 지니 온전으로 돌아오는 반복된 삶’ 만큼을 위한 수고라 해 아래서의 수고라면 그 인생은 공고한 날의 결말을 맺는 인생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은 오직 그 해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전12:1)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만 그 모든 헛된 인생을 창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해 아래 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9절) 전도자가 말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이 되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의 기쁨하시는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이 시대 이 세대에 가운데 존재케 해 주신 그 창조자의 목적을 바른 정체성과 사랑 가운데 발견하여 오스 기니스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감사하고 만족한 인생을 디자인하며 살아가시는 누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표어
“한 영혼을 품어 열매 맺는 생명의 공동체”

나의 생각에는 어떤하나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았느냐 마태복음 18:12)

일반집회		교회학교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시	오전 예배부 주일 오전 10시
드림 워십	주일 오전 8시	영아부 주일 오전 12시
글로벌 워십	주일 오전 10시	유아부 주일 오전 12시
블레스 워십	주일 오후 12시	유치부 주일 오전 12시
청년예배	주일 오후 12시	초등부 주일 오전 12시
영아예배	주일 오전 10시	중고등부 주일 오전 12시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8시	리브미션부 주일 오전 12시
수요종교기도회	수요일 저녁 8시	세비라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유 아 부	최수진 사모 (917)526-1344	1 선 교 회	김성준 목사 (617)949-1118
유 치 부		2 선 교 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초 등 부	최주안 전도사 (646)662-0691	3 선 교 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중 고 등 부	손주영 전도사 (917)797-4237	4 선 교 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리브미션	박명애 전도사 (718)737-1643	5,6선교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청 년 부	김성준 목사 (617)949-1118	허스패닉	이호성 목사 (646)549-6043
영 아 회 중	홀 김 목사 (201)679-2924	네 팔	다니엘 바츠트 목사 (201)927-0220
행 정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몽 골	투글들 목사 (646)467-2675
양 육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다민족지역	왕영란 전도사 (917)533-9511
새 가 족 부	최순성 목사(성) 박수진 전도사(부)	시나이지역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심 령 부	박수진 전도사 (646)642-9331		

단체 기독교TV(타임워너 케이블 채널487)/ 매주 금요일 저녁 9시(만양송)
토요일 오전 11시(개양송)

2024년 9월 8일	
1부 예배 8:00am	2부 예배 10:00am
드림 워십 인도: 최순성 목사	글로벌 워십 인도: 최순성 목사

*경배와 찬양 Worshiping *기원 Invocation *성서구독 Responsive Reading #31(Psalm 68) *신앙고백 Confession *찬송 Hymn 기도 Prayer 성경말씀 Scripture *봉헌 Offering 찬양 Anthem 성고 Psalms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s	새458장(롬5:3) “나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Thy Your Heart May be Heavy” 홍성문 찬조 Elder Sung Ho Hong 저도서 1:12-18 Ecclesiastes 1:1-18 세213장(골3:48) “나의 생령 드리나!” (1.4절) “Love My Life and Let it be” 글로벌이 찬양대 “주는 나의 피난처” “Coming to know White like Knowing” 김학진 목사	산양고백 사도신경 경배와 찬양 블레스 찬양팀 기도 이사회 집사 공동체 소식 영상	마태복음 7:13-14 “나 무엇과도 주님을”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최순성 목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최순성 목사
*찬송 Hymn *축도 Benediction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s	새490장(골5:2)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There's a Dream That I Dream” 김학진 목사		

(* 표는 가능하면 일어나서 / Stand if able)